

# UNESCO Regional Center 사업(2014)

기본사업

2014-10

임 언  
한정임  
박동진  
안유진  
김소연

# UNESCO Regional Center 사업(2014)

보안등급 | 일반과제

기본사업

2014-10

임 언  
한정임  
박동진  
안유진  
김소연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머 리 말

---

한국직업능력개발원(KRIVET)은 2000년에 아시아·태평양 지역 UNESCO Regional Center로 지정되어 회원국들에게 인적자원개발과 직업기술교육훈련 분야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와 노하우를 공유해오고 있다. 또한 아시아 지역에서 직능원이 UNESCO-UNEVOC 센터로서 coordinator 기능을 담당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지역 내에서 그리고 글로벌 사회에서 HRD, TVET 발전을 위하여 담당해야 할 역할이 확대되어 가고 있다.

한국은 196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경제발전이 급속하게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리우며, 세계의 주목을 받아왔다. 이러한 한국의 경제발전은 인적자원이 풍부해서 가능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개발도상국에서는 한국의 인적자원개발과 직업교육훈련을 벤치마킹하려는 수요가 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UNESCO Regional Center 사업 2014에서는 첫째, 한국의 경제발전에 따른 직업교육훈련 제도의 발전과정과 중등직업교육 정책 현안에 대해 개괄적으로 집필하였다. 그 결과 영문책자 “Economic Development and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in Korea”와 “The Present and Future of Secondary Vocational Education in Korea”를 발간하여, 개발도상국 및 글로벌사회와 공유하였다. 이는 국내외 HRD, VET 관련 정책결정자 및 전문가들에게 주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이다.

둘째, 직능원은 한국의 청년층 숙련 개발과 활용 실태를 검토하고 숙련개발과 청년고용 정책 및 제도들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주요 국가들의 선진 사례와 경험을 공유하기 위한 국제세미나를 개최하였다.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해 준 UNESCO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아울러 행사 개최에 도움을 준 해외 유관기관의 TVET 전문가들에게도 감사의 뜻을 전한다. 한국의 직업교육훈련제도 발전 과정과 중등직업교육 정책 소개 책자를 집필한 원내 전문가들의 수고를 치하한다. 글로벌 사회의 협력관계가 더욱 돈독해 질 것을 기대하는 바이다.

2014년 12월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원 장 이 용 순

## 제목 차례

### 요 약

#### 제1장 사업의 개요\_1

제1절 사업의 배경과 목적 .....	3
제2절 사업의 주요 내용 및 추진 방법 .....	6

#### 제2장 국제 세미나 「청년층 숙련 개발과 고용의 연계 강화」\_11

제1절 국제 세미나의 개요 .....	13
제2절 세미나 발표 및 주요 논의 내용 .....	17
제3절 세미나 개최 성과 .....	25

#### 제3장 한국의 경제발전과 직업교육훈련제도 및 중등직업교육

##### 정책 소개 책자 발간\_27

제1절 책자 발간의 목적 .....	29
제2절 집필 방법 및 절차 .....	30
제3절 주요 집필 내용 .....	31
제4절 보급 및 활용 .....	42

**제4장 사업의 기대효과 및 활용 방안\_43**

제1절 기대효과 및 활용 방안 ..... 45

제2절 향후 추진 방향 ..... 47

**부 록\_49**

1. 국제 세미나 영문 일정표 ..... 51

## 요 약

### 1. 사업의 목적

- UNESCO Regional Center 사업(2014)의 목적은 다음과 같음.
  - 첫째, 한국의 청년층 숙련 개발과 활용 실태를 검토하고 유관기관 및 국제기구를 통해 선진 사례와 경험을 공유하기 위하여 국제 세미나를 개최하고자 함.
  - 둘째, 한국의 직업교육훈련제도와 주요 관련 현안에 대하여 학습하고 벤치마킹하기를 희망하는 글로벌 사회의 수요에 부응하며 한국의 경험을 공유하기 위하여 한국의 경제발전과 직업교육훈련제도의 발전 과정을 소개하는 영문 책자와 중등직업교육 정책을 소개하는 영문 책자를 발간하고자 함.

### 2. 사업의 내용 및 추진 방법

#### □ 사업의 내용

- 국제 세미나 「청년층 숙련 개발과 고용의 연계 강화」 개최
  - 숙련개발과 청년고용 정책 및 제도들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주요 국가들의 사례 공유
- 한국의 경제발전 및 직업교육훈련제도 발전 과정과 중등직업교육 정책 현황을 공유하기 위한 영문 책자 발간



## □ 사업 추진 방법

- 국제 세미나 「청년층 숙련 개발과 고용의 연계 강화」 개최
  - 행사 계획 수립
  - 주요 발표자 섭외 및 초청
  - 원고 및 발표자료 취합
  - 행사 개최
  - 영문 책자(총서) 발간
  
- “한국 중등직업교육의 현재와 직업미래” 영문 책자 집필 및 발간
  - 집필 분야 및 집필진 선정
  - 집필 분야별 핵심 내용 선정 및 작성
  - 원고 초안 검토 및 수정 보완
  - 집필원고 영문 번역
  - 영문 번역 초안 검토 및 수정 보완
  - 영문 책자 인쇄 및 배포
  
- “한국의 경제발전과 직업교육훈련” 영문 책자 집필 및 발간
  - 집필 분야 및 집필진 선정
  - 집필 분야별 핵심 내용 선정 및 작성
  - 원고 초안 검토 및 수정 보완
  - 집필원고 영문 번역
  - 영문 번역 초안 검토 및 수정 보완
  - 영문 책자 인쇄 및 배포

### 3. 사업의 기대효과 및 활용 방안

#### □ 기대효과

- UNESCO 회원국의 유관기관, UNEVOC 센터 및 네트워크 기관과의 국제 세미나 결과를 통해서 청년 숙련개발 및 고용에 관한 정책적 시사점 제시
- 한국의 경제발전 경험과 인적자원개발 경험을 공유하여 각국의 정책수립에 기여
- 한국의 직업교육훈련의 발전 과정과 중등직업교육의 주요 정책 이슈를 소개할 수 있는 자료 확보

#### □ 활용 방안

- 각국의 청년 숙련개발 관련 TVET 정책에 대한 비교연구 기초자료로 활용
- 국내외 유관기관에 TVET 분야의 공적개발원조사업(ODA)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기초자료로 제공
- 해외 유관기관 및 해외 사절단에게 한국의 TVET 우수사례를 소개할 수 있는 문헌으로 활용

#### □ 향후 추진 방향

- 유네스코 세계 교육포럼 2015 부대행사의 일환으로 국제 세미나 개최

- UNEVOC 센터와의 공동연구 추진
- 한국의 직업교육훈련제도 관련 영문 책자 보완·발간

## 제1장

# 사업의 개요

제1절 사업의 배경과 목적

제2절 사업의 주요 내용 및 추진 방법



## 제1장 | 사업의 개요

### 제1절 사업의 배경과 목적

#### 1. 사업의 배경

-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글로벌 직업능력개발 정책 연구기관으로서의 다양한 국내외 연구 사업을 수행해 왔음. 특히, 2000년에 UNESCO로부터 TVET 분야의 지역 우수 센터로 지정된 이래 UNESCO Regional Center로서 아시아·태평양지역(이하 아·태지역) 및 개발도상국 중심으로 직업기술교육훈련 발전과 확산을 위해 다양한 직업기술교육훈련 연구와 사업을 주도하고 지원해 왔음.
- 2012년에 중국 상해에서 개최되었던 제3회 국제 직업기술교육훈련 총회 이후, UNESCO는 정책 논의를 넘어 적극적인 행동으로 이어지는 직업기술교육훈련의 변화와 확산을 위하여 UNESCO Regional Center들과 세계 곳곳에 위치한 UNEVOC network 소속 UNEVOC 센터들, 그리고 UNESCO-UNEVOC의 협력 파트너(국제기구, 지역협의체 등) 간의 협력강화를 강조해

#### 4 UNESCO Regional Center 사업(2014)

왔음. 이의 일환으로, 2013년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UNESCO-UNEVOC과 공동으로 지역별 UNEVOC 센터와 해외 유관기관 및 국제기구 전문가들이 참여한 UNESCO 아·태지역 TVET 포럼을 개최하였음.

- 한국은 단기간에 성취한 경제성장과 더불어 원조 수원국으로부터 공여국으로 전환한 유일한 국가이며, 인적자원개발과 직업교육훈련은 이러한 경제발전을 이룩하는 주요 성공요인이었음. 아시아, 아프리카 등 개발도상국들은 한국의 경제발전 요인 중 직업기술교육훈련에 대하여 벤치마킹하고자 해외 사절단의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방문이 증가하고 있음.
  - UNESCO, ILO, OECD, World Bank, Asian Development Bank, SEAMEO 등 국제기구들은 다년간 한국의 성공 경험을 개발도상국들과 공유하도록 한국의 사례 공유를 위한 세미나, 워크숍 등의 국제행사를 한국직업능력개발원으로 요청해 오고 있음.
  - 아시아, 아프리카 등의 개발도상국들은 한국의 경제발전 요인 중 직업기술교육훈련에 대하여 벤치마킹하고자 하며, 이들로부 터의 해외 사절단 방문이 매년 꾸준히 이어지고 있음.
- 아·태지역 국가들은 지역적 특성과 국가적 상황으로 자국에 적용 가능한 발전 모델을 전수받기를 희망하고 있으며, 미국이나 유럽 등의 선진국에 비하여 비교적 최근에 개발도상국의 위치에서 경제발전을 이룩한 한국의 경험 전수에 대한 요청이 지속적으로 강조되어 왔음.

-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UNESCO Regional Center이며 UNEVOC network 담당 기관으로서 직업교육에 관한 논의와 협력의 활성화를 통한 직업교육 관련 정책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한국의 직업교육 경험을 적극적으로 공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 2. 사업의 목적

- ‘UNESCO Regional Center 사업(2014)’의 목적은 다음과 같음.
- 첫째, 한국의 숙련시스템을 점검하고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유관기관 및 국제기구를 통해서 각국의 선진 사례와 경험 등을 공유하기 위하여 청년고용 및 숙련 정책과 관련한 국제 세미나를 개최하고자 함.
  - 국제 세미나를 통해 소개된 청년고용 정책 및 숙련 정책 사례를 UNESCO의 UNEVOC Network 회원국들과 공유하여 각국의 정책수립에 기여하고,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UNESCO Regional Center로서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고자 함.
- 둘째, 한국의 직업교육훈련제도와 주요 관련 현안에 대하여 학습하고 벤치마킹하기를 희망하는 글로벌 사회의 수요에 부응하고 한국의 경험을 공유하기 위하여, 한국의 경제발전과 직업교육훈련제도의 발전 과정을 소개하는 책자와 중등직업교육 소개 영문 책자를 발간하고자 함.



- 이와 같은 책자 발간을 통해 한국의 경제발전과 이를 이끌어낸 주요 요인인 직업교육 정책 경험을 적극적으로 공유하여 관련 정책에 대한 생산적 논의를 촉진시키고자 함.

## 제2절 사업의 주요 내용 및 추진 방법

### 1. 국제 세미나 「청년층 숙련 개발과 고용의 연계 강화」 개최

#### ○ 개최 목적

- 숙련 개발과 청년 고용 정책 및 제도들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주요 국가들의 사례 공유
- 청년 고용의 증대를 위한 숙련 개발 혁신 및 숙련 활용 개선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논의

#### ○ 행사 개요

- 행사명: KRIVET International Seminar / FTA HRD Forum
- 주제: Enhancing the Link between Skills Development and Youth Employment Policies
- 일시: 2014년 6월 12일(목)
- 장소: 서머셋 팰리스 서울 세미나룸
- 참가자: BIBB, SFIVET, NCVER 등 해외 유관기관 관계자, UNESCO-UNEVOC 등 국제기구 관계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원, 관련 부처 공무원 등 60여 명

- 행사 내용
  - 세션 1: 일과 학습의 연계(I) (Linking work and learning(I))
  - 세션 2: 일과 학습의 연계(II) (Linking work and learning(II))
  - 세션 3: 토론
- UNEVOC Network 관계자 미팅(부대 행사)
  - 일시: 2014년 6월 13일(금), 10:00~12:00
  - 장소: 서머셋 팰리스 서울 미팅룸 B
  - 참가자: BIBB, NCVER, CIVTE 등 UNEVOC network 관계자, UNESCO-UNEVOC 소장,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글로벌 협력센터 담당자 등 10여 명
- 추진 방법
  - 세미나 어젠다 및 프로그램 작성
  - 주요 발표자 및 토론자 섭외 및 초청
    - 청년층을 중심으로 한 일과 학습의 연계와 관련한 해외 우수 사례 발표자 및 토론자 섭외
  - 발표 및 패널 세션 운영 계획 수립
  - 초청장 발송
  - 행사 운영안 및 예산 세부 내역 작성
  - 행사장 사전 실사 실시
  - 발표자료를 바탕으로 총서 발간

## 2. “한국 중등직업교육의 현재와 직업미래” 영문 책자

### 집필 및 발간

- 주제: 중등단계 직업교육 정책의 변화과정 및 최근 동향과 정책적 이슈 소개, 중등직업교육의 주요 성과, 시사점 소개, 개선 방향 및 도전 과제 제시
  
- 절차
  - 집필기준 설정 및 국문원고 집필
    - 특성화고등학교, 마이스터고등학교, 산학협력, 진로 등 분야별로 원내 전문가를 선정하여 집필진 구성
  - 집필 분야별 핵심 내용 선정 및 작성
  - 원고 초안 검토 및 수정·보완
  - 영문 번역 및 감수
  - 원고 편집
  - 영문 책자 인쇄 및 배포

## 3. “한국의 경제발전 및 직업교육훈련제도 발전 과정” 책자

### 발간

- 주제: 1960년대 이후 최근까지 한국의 직업교육훈련제도 발전과 경험을 경제발전 단계별로 정리하여 소개
  
- 절차
  - 집필기준 설정 및 국문원고 집필

- 집필 분야별 핵심 내용 선정 및 작성
- 원고 초안 검토 및 수정·보완
- 영문 번역 및 감수
- 원고 편집
- 영문 책자 인쇄 및 배포



## 제2장

### 국제 세미나 「청년층 숙련 개발과 고용의 연계 강화」

- 제1절 국제 세미나의 개요
- 제2절 세미나 발표 및 주요 논의 내용
- 제3절 세미나 개최 성과



## 제2장 | 국제 세미나 「청년층 숙련 개발과 고용의 연계 강화」

### 제1절 국제 세미나의 개요

#### 1. 국제 세미나 개최 배경 및 목적

- 글로벌 경제 위기의 여파로 급등한 실업률이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청년층 고용 상황은 더욱 심각함. 청년들의 경우 교육훈련 기관에서 습득한 내용이 산업 현장과 가까울수록 청년들의 노동시장 이행이 원활해진다는 점에서 한국 정부도 유럽의 도제제도에 관심을 가져 왔음.
- 학교와 일터의 거리를 좁히는 것 외에도 학교를 떠난 청년들이 일터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임. 특히, 임금 및 근로조건에서의 격차를 줄이고 청년들의 숙련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직무 개발 및 활용이 중요함.



- 이러한 점에서 청년 고용의 개선을 위해서는 숙련 개발의 혁신 외에도 청년 고용 촉진을 위한 노동시장 정책들이 다양한 국가들에서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음.
- 숙련 개발과 청년 고용 정책 및 제도들이 유기적으로 연계된 주요 국가들의 사례를 공유하고, 청년 고용 증대를 위한 숙련 개발 혁신 및 숙련 활용 개선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본 행사를 개최하였음.

## 2. 국제 세미나 개요

- 행사 개요
  - 행사명: 국제 세미나 「청년층 숙련 개발과 고용의 연계 강화」  
(Enhancing the link between skills development and youth employment policies)
  - 주제: 청년층 숙련 개발과 고용의 연계 강화(Enhancing the link between skills development and youth employment policies)
  - 일시: 2014년 6월 12일(목), 10:00~17:30
  - 장소: 서머셋 팰리스 서울 세미나룸 A
  - 참가자: BIBB, SFIVET, NCVER 등 해외 유관기관 관계자, UNESCO-UNEVOC 등 국제기구 관계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원, 관련 부처 공무원 등 60여 명
  - 세미나 내용
    - 세션 1: 일과 학습의 연계(I) [Linking work and learning (I)]

- 세션 2: 일과 학습의 연계(II) [Linking work and learning(II)]
- 세션 3: 토론
- UNEVOC Network 관계자 미팅 (부대 행사) 개최
- 영문 총서 “Youth Employability and Skills Development”  
(연구총서 16 연구자료 2012-40) 발간

### 3. 행사 일정

○ Day 1: 6월 12일(목), 10:00~17:30

시간	프로그램	비고
09:10~10:00	등록	
10:00~10:20	- 개회사: 박영범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원장	
세션 1: 일과 학습의 연계(I) [Linking work and learning(I)]		
10:20~11:40	- 발표: Joakim Bakke(Ministry of Education & Research Norway, 노르웨이 교육연구부) - 발표: Gesa Muenchhausen (BIBB, 독일 연방직업교육훈련연구소)	좌장: 최영섭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선임연구위원)
11:40~12:00	- 질의응답	
12:00~13:30	- 오찬	
세션 2: 일과 학습의 연계(II) [Linking work and learning(II)]		
13:30~15:30	- 발표: Erik Swars (SFIVET, 스위스 직업능력개발원) - 발표: Philip Loveder (NCVER, 호주 국립직업교육연구센터) - 발표: Yufeng Liu (CIVTE, 중국 직업기술교육중심연구소)	좌장: 류재우 (국민대학교 교수)
15:30~16:00	- 질의응답	

<표 계속>

16 UNESCO Regional Center 사업(2014)

시간	프로그램	비고
16:00~16:15	- 휴식	
세션 3: 토론		
16:15~17:15	- 토론: Antje Barabasch (Cedefop, 유럽직업훈련연구센터) Matthieu Cognac(ILO 아·태지역사무소) Shyamal Majumdar (UNESCO-UNEVOC, UNESCO 산하 직업기술교육훈련센터)	좌장: 백성준 (KDI국제정책 대학원 교수)
17:15~17:25	- 질의응답	
17:25~17:30	- 폐회사	

○ Day 2: 6월 13일(금), 10:00~12:00

- 부대 행사: UNEVOC Network 관계자 미팅

시간	프로그램	비고
10:00~12:00	- UNEVOC Network 관계자 미팅 : UNEVOC Network regional coordinators	

## 제2절 세미나 발표 및 주요 논의 내용

### 1. 세션 1: 일과 학습의 연계(I) [Linking work and learning(I)]

- 발표 1: Skills Strategy: The Case of Norway, Joakim Bakke, Ministry of Education & Research Norway(노르웨이 교육연구부)
  - 노르웨이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인건비가 매우 높은 편이며, 이는 일부 짧은 노동시간에 기인함. 시간제 일자리의 비율 역시 매우 높은 편이며, 이처럼 일과 삶의 균형을 유지할 가능케 하는 노동시장 상황을 지속시키기 위해 효율적인 인력과 형성된 숙련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
  - PIAAC 결과에 따르면 노르웨이의 성인의 숙련 역량은 OECD 회원국 중 상위권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PISA 결과에서는 청소년 및 청년층의 학업성취도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최근 들어 노르웨이 정부가 직업교육을 포함한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를 늘린 것은 정부의 청년층의 숙련 개발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반영한 것임.
  - 숙련 관련 도전과제는 일자리에 적합한 숙련 개발, 숙련 공급 촉진, 숙련의 효과적인 활용 등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음.
  - 국가의 잠재 숙련을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교육훈련, 노동, 경제, 조세제도 등 다양한 제도의 유기적인 연계가 이루어져야 함. 이를 위해 숙련과 관련하여 범정부적인 접근을 취할 필요가 있으며, 각 부처 간, 중앙정부·지방정부 간에 협조적 노력이 필수적임.

- 노르웨이는 숙련개발과 관련하여 산업, 정부, 사회적 파트너로 이루어진 삼자 체계(tripartite system)를 운영하여 사회적인 공감대를 바탕으로 숙련의 수요자와 공급자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정책을 수립하고자 노력함.
- 중등직업교육 단계에서 도제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정규 직업교육을 받는 고등학생의 경우 2년간의 학교 교육을 마친 후 2년 동안 도제훈련을 받을 수 있음. 그러나 많은 기업들이 도제 훈련생들을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고, 이들을 훈련시키는 데 부담을 느끼고 있는 실정임. 도제훈련생들을 위한 일자리가 부족한 상황이며, 정부의 재정지원을 통해 민간기업 및 공공 부문에서의 도제 일자리를 확충하여야 함. 사용자들의 도제훈련생들에 대한 인식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

○ 발표 2: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and Youth Employment - Some Experiences from Germany, Gesa Muenchhausen, BIBB(독일연방직업교육훈련연구소)

- 독일은 EU(유럽연합) 회원국 중 실업률이 매우 낮은 편에 속하며, 청년 실업률 또한 EU 평균보다 낮은 편임. 독일은 듀얼시스템으로 대표되는 잘 발달된 직업교육훈련제도를 통해 고용시장과 교육제도를 긴밀히 연계하여 이처럼 낮은 실업률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임.
- 독일 직업교육훈련제도는 주(Länder)별 사용자단체들과 노동조합의 강한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하며, 다양한 이해집단과 사회적 파트너의 참여를 통해 운영되는 것이 주요 특징임. 연방정부

가 사업장에서의 직업훈련을 관할하며, 주정부는 학교에서의 직업교육을 관할함. 상공회의소, 농업회의소 등의 competent body 들이 직업교육훈련을 모니터링함. 직업훈련 직종의 업데이트는 회사 내부에서의 수요 인식으로부터 시작되어 재계 단체들과 노조가 논의를 거치게 되며, 최종적인 훈련 관련 규정의 개정은 연방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짐. 또, 사업체, 주정부, 노동조합, 사용자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 집단과 사회적 파트너가 숙련 수요를 파악하고 교육훈련과정 개발 등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며, 전체 훈련비용의 80% 이상을 민간 부문이 부담함.

- 독일의 듀얼시스템은 일주일 중 1~2일의 학교 수업과 4일 정도의 사업장에서의 도제훈련을 받는 형태로 운영됨. 학교에서는 직업교육 및 일반 교육을 통해 일반 숙련(general skill) 및 해당 직무의 이론적인 배경지식을 습득하며, 사업장에서는 실습을 통해 학교에서 배운 이론 지식을 직접 적용하여 실무 지식을 습득함.
- 독일 정부는 학교 졸업자 중 도제훈련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사용자단체들과 협약을 맺어 청년들의 도제훈련 기회를 확충하고자 노력하였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 도제훈련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장이 줄어드는 추세이며, 이에 대한 원인을 파악할 필요가 있음.
- 앞으로 독일 노동시장에서도 대졸자 수가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직업교육훈련이 고학력자들에게도 충분히 매력적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도전과제임.
- 학생들이 직업교육보다는 대학진학 등 일반 고등교육을 선호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어, 독일 노동시장에서도 대졸자 수가 더

육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직업교육훈련이 학생들 및 고학력자들에게도 충분히 매력적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도전과제임. 현재 중등단계의 직업교육훈련과 고등교육 사이에 이동성이 낮다는 문제가 있으며, 직업교육훈련 과정 중 습득한 자격을 대학의 입학조건으로 인정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 2. 세션 2: 일과 학습의 연계(II)[Linking work and learning(II)]

○ 발표 3: Getting Qualified for Employment, Erik Swars, SFIVET (스위스 직업능력개발원)

- 스위스에서 직업교육훈련제도의 밑바탕이 되는 관련 규정 및 가이드라인은 연방정부가 제시하며, 각 주(Canton)는 시행규정 제정과 직업, 진로지도서비스 제공을 통해 VET 프로그램의 운영을 관리·감독함. 각 직종의 전문가단체는 VET 프로그램 개발에 참여하며, 회원 사업체의 도제훈련 참여를 장려함.
- 스위스는 OECD 국가 중 청년실업률이 매우 낮은 편에 속함. 최근 몇 년 동안 청년층의 VET 학위 소지 비율이 증가했으며, 2011년 기준 70% 이상이 VET 학위를 소지하고 있음. 이 중 90% 이상이 듀얼시스템을 통해 학위를 취득한 것으로 나타남. 매년 약 7만여 명의 도제훈련생이 310여 개의 직업교육 학교와 7만여 개의 사업체에서 도제훈련을 받음.
- 듀얼시스템 체제에서 학생들은 일주일에 3~4일은 사업체에서 도제훈련을 받으며, 1~2일은 직업교육학교에서 직무와 관련된 이론교육과 일반교육을 받음. 또, 산업특수적(sector-specific) 숙

련의 습득을 위해 약 3~8주간의 산업교육을 받게 됨.

- 듀얼시스템은 매우 유연하여 일반교육과 직업교육 사이의 비교적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하며, 후기중등교육 단계에서 VET 학위를 취득한 학생들도 대학에 진학할 수 있음.
- 도제훈련에 따른 사업체의 비용과 편익을 조사한 결과, 편익이 비용을 상회하여 순편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이는 사업체의 도제훈련 참여에 대한 유인으로 작용함. 2년의 훈련과정 보다는 3, 4년 과정에서 더 높은 순편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됨.
- 청년들의 도제훈련 참여 및 취업 장려를 위해 정부 차원에서 도제훈련 일자리 안내 및 제공 서비스, 직업정보서비스 및 개별 튜터링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음.

○ 발표 4: Linking Skills and Jobs for Youth: Australian Case, Philip Loveder, NCVER(호주 국립직업교육연구센터)

- 학생들의 대학진학률이 높아지고 노동참여율이 감소하는 추세임. 더불어 학교에 다니지 않거나 취업을 하지 않는 니트(NEET :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족도 최근 들어 소폭 증가하였음.
- 호주 정부는 National Partnership Agreement on Youth Attainment and Transitions 체결을 통해 학생들의 숙련 향상 및 자격 취득을 장려하고 있음. 이 협약은 청소년이 최소 만 17세까지 전일제 교육 및 훈련을 받거나 근무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조기학업종료자(early school leaver)들이 소득보조를 받기 위한 조건으



로 교육 및 훈련 참여 조건을 강화하였음. 고등단계의 직업교육훈련을 받고자 하는 이들에게 등록금에 대한 금전적인 지원을 하는 'VET FEE-HELP' 프로그램을 운영함.

- 개인의 학력 및 숙련의 수준이 노동시장 참여 가능성과 임금사이에 강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발견함. 임금상승 효과는 후기중등교육 이수자 혹은 Certificate III 취득자 이상에게서 관찰됨. 시간제 근무 및 단순노동 참여도 전일제 일자리에 취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음.
- VET 졸업자 중 약 1/3 정도만이 자신의 전공과 관련된 직무에 종사 중인 것으로 나타남. VET 프로그램을 노동시장의 수요와 더 긴밀히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교육훈련과 노동 참여가 저조한 소외된 청년층을 식별하고, 그들의 숙련개발과 노동 참여를 장려하기 위한 방안을 고민하여야 함.

○ 발표 5: Systematic Design to Enhance the Link between Skills Development and Youth Employment in PR China, Yufeng Liu, CIVTE(중국 직업기술교육중심연구소)

- 중국의 인구는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음. 급격한 도시화로 인해 도시인구는 상승하고 있으나, 농촌인구는 감소하고 있음.
- 도시인구의 실업률은 2000년대 초반부터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12년 기준 9%를 넘는 수준임. 도시의 실업인구 중 20대의 비율이 33.2%로 가장 높으며, 20~24세의 졸업생 중 실직자가 6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남. 중등직업교육 졸업자의 취업률은 2013년에 96.81%로 매우 높게 조사됨.

- 비교적 높은 청년실업률의 주요 요인으로는 노동시장 관련 정보의 부족으로 인한 숙련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 다원화된 VET 제도로 인한 교육훈련의 낮은 효율성, 전공교육에 있어서의 체계적 접근 부족 등을 꼽을 수 있음.
- 국무회의에서 VET의 현대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의사결정을 하여 추진하고 있음.: 몇몇 일반대학의 기술대학으로의 전환, 도제제도의 시험 도입 운영, 청년층을 위한 창업훈련 프로그램 운영 및 숙련개발 프로그램 강화

### 3. 세션 3: 토론

#### ○ 주요 논의 내용

- 학교에서의 기업가정신 교육의 강조를 통해 청년층의 창업을 장려할 필요가 있음. 기업가정신 교육이 실질적인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게 창업자금 지원, 창업에 필요한 숙련개발 기회 제공, 창업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과도한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청년층의 창업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여야 함.
- 많은 나라에서 도제훈련 프로그램은 제조업을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으나, 다른 분야에도 새로운 도제훈련 기회를 창출할 수 있을 것임. 관광산업 등 서비스업에서도 인력수요가 많은 만큼 도제훈련이 정착할 수 있으며, 농촌의 경우 고부가가치 농업 분야의 도제훈련 프로그램 개발도 시도해 볼 수 있음.
- 급변하는 사회경제적 환경에 맞추어 직업교육훈련 또한 혁신적으로 변화하여야 함.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하여 녹색성장에 필요한 녹색숙련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 많은 국가에서 사회경

제적 불평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소외계층이 직업교육훈련에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함. 숙련개발도 기술변화에 따라 전 생애에 걸쳐 평생교육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함.

#### 4. UNEVOC Network 관계자 미팅

○ 주요 논의 내용

- UNEVOC 센터들 간에 국제행사 일정과 내용을 공유하는 등 정보교류를 통해 UNEVOC 센터 네트워크를 활성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UNEVOC 네트워크 멤버 중 활동이 부진한 기관은 특별 관리할 필요가 있음.
- UNEVOC Network 매뉴얼에 명시된 UNEVOC Cluster coordinator의 국가 및 지역 내에서의 역할을 보완하여 업데이트할 계획임.
- UNESCO-UNEVOC Regional Forum: Supporting improved evidence-based research & greater investment in Technical and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8월 개최)
- UNESCO-UNEVOC global forum: skills for work and life post-2015(10월 중순 개최 예정)
-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국제행사, 해외 유관기관과의 공동 연구사업 현황 및 향후 추진 계획 공유: UNESCO BEAR Project(2015년 완료 예정), KRIVET-BIBB INDUCT study(진행 중), KRIVET-Cedefop study on apprenticeship(진행 중), Global HR Forum 2014(11월 개최 예정)
- UNEVOC Center들을 중심으로 국제 공동 연구 5개를 추진할 계획임. 한국직업능력개발원, BIBB, NCVER 및 노르웨이와 캐

나가의 UNEVOC 센터에서 각각 주제를 하나씩 선정해 연구를 주도하고, 나머지 기관들은 공동연구기관으로 참여하는 형태가 될 것임. 2015년 이후 연구 주제와 추진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오갈 것으로 보임.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진로개발 및 진로지도 분야의 연구를 제안함.

### 제3절 세미나 개최 성과

- 청년층의 숙련 개발과 노동시장 시스템이 상대적으로 긴밀하게 연계가 이루어진 독일, 스위스, 노르웨이 사례를 통해서 한국에서의 직업교육훈련에서의 현장성 제고, 노동시장으로의 이행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정책 수립에 도움이 될 만한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음.
- 호주와 중국의 사례는 아·태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직업교육의 현황을 이해하는 기회로 작용했으며, 직업교육에 대한 선호도가 낮아지는 상황에서 양 국가가 취한 정책을 통해 한국 직업교육 정책 수립에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음.
- 아·태지역의 UNEVOC 센터 관계자들과의 협의를 통해서 근거 기반 정책 수립을 위한 공동 연구 수행 방안 논의 등 협력을 공고히 하는 성과가 있었음.



## 제3장

# 한국의 경제발전과 직업교육훈련제도 및 중등직업교육 정책 소개 책자 발간

제1절 책자 발간의 목적

제2절 집필 방법 및 절차

제3절 주요 집필 내용

제4절 보급 및 활용



## 제3장 | 한국의 경제발전과 직업교육훈련제도 및 중등직업교육 정책 소개 책자 발간

### 제1절 책자 발간의 목적

- 한국에서 직업교육훈련제도의 발전은 우수한 산업인력 양성을 가능하게 하여 지난 수십 년간 경제성장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며, 이는 많은 개발도상국들이 벤치마킹하고자 하는 대표적인 모범 사례로 꼽힘. 매년 많은 해외 사절단이 한국의 직업교육훈련제도의 발전 과정과 경제발전에서의 기여에 대해 학습하고자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을 방문하고 있음.
- 이러한 국제사회의 수요에 부응하고자 한국의 직업교육훈련제도 발전과 경험을 경제발전 단계별로 정리하여 소개하는 영문 책자를 발간하고자 함. 또 한국의 중등단계 직업교육이 이루어 온 성과와 경험, 미래를 위한 변화를 대외적으로 알릴 수 있는 영문 책자를 발간하고자 함.



- 한국의 직업교육훈련제도 발전 과정과 현황에 대한 내용을 정리, 국문 책자와 영문 책자로 발간하여 국내외 유관기관에 참고자료로 배포하고, 해외 사절단 방문 시 혹은 원내 연구자의 해외출장 시 한국의 제도를 소개하기 위한 용도로 제공하고자 함.

## 제2절 집필 방법 및 절차

- 각 분야별로 선정된 전문가가 담당 분야에 대해 직접 국문으로 원고 작성
- 집필 총괄책임자가 전체적인 틀을 검토하고 검토 결과에 따라 각 집필자가 개별적으로 수정작업 실시
  - 수정 원고를 집필진들이 서로 돌려가며 검토한 결과를 반영하고 재수정함.
  - 재수정본을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이 재검토하여 수정·보완 과정을 거쳤음.
  - 수차례에 걸친 국문본의 편집을 통해 원고의 통일성과 일관성을 꾀하였음.
- 영문 번역 및 영역본 감수, 수정·보완
  - 영문 원고 윤문 작업
  - 영문 책자 초안 검토 작업
- 영문 책자 인쇄 및 배포

### 제3절 주요 집필 내용

#### 1. 한국의 경제발전과 직업교육훈련(Economic Development and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in Korea, 연구자료 2014-32)

○ 목차 및 집필진

장	제목	집필진
제1장	머리말	박영범
제2장	경제발전과 노동시장	
제3장	경제발전과 직업교육	
제4장	경제발전과 직업훈련	
제5장	경제발전 단계별 직업교육훈련의 역할	

○ 제1장(머리말) 주요 내용

- 한국 경제의 초기 공업화 단계에서의 직업교육훈련제도와 경험은 많은 개발도상국들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음.
- 한국의 직업교육훈련제도는 직업교육과 직업훈련의 관할 부처가 다르며, 이는 상호 경쟁을 통해 성과를 높이거나 부처 간 높은 칸막이로 비효율을 가져오는 요인이 됨.
- 경제발전애 따른 시기별로 직업교육 및 직업훈련의 역할을 보고자 함.

○ 제2장(경제발전과 노동시장) 주요 내용

- 인적자원 측면에서 한국의 경제발전 단계는 다음과 같이 크게 세 시기로 구분됨.
  - 도약단계 (1961~1972): 노동집약적 산업의 육성을 통한 초기 공업화를 위한 대규모 저숙련 인력 양성
  - 중화학공업 육성시기(1973~1979): 정부 주도 중화학공업 육성에 필요한 숙련 인력 양성
  - 80년대 이후의 경제자유화 시기: 한국 경제가 대외적으로 개방되고 한국의 기업이나 인적자원의 해외진출이 적극화됨. 외환위기 이후 고용정책의 패러다임 변화로 청년 취업난, 비정규직의 증가 및 고착화 등의 문제 발생

○ 제3장(경제발전과 직업교육) 주요 내용

- 한국 교육에 있어서 직업교육의 위치, 그리고 경제 및 사회발전에 대한 직업교육의 기여는 한국 경제 및 사회의 발전 단계, 특히 대학교육과 깊은 연관이 있음.
- 공업화 초기 단계인 1960년대와 국가 주도로 중화학공업 육성이 이루어진 1970년대에는 국가 인적자원개발정책에 있어서 직업교육이 상당한 위치를 차지함.
- 경제발전의 따라 고등교육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대학교 정원이 대폭 확대된 1980년대는 직업교육의 침체기로 평가됨.
- 1990년대 전반기에 직업교육이 다시 주목을 받았으나, 중반기에 들어 대학교육이 급속도로 팽창하며 한국의 고등교육 경쟁력이 하락함.

-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선취업-후진학’ 정책이 도입되면서 직업교육은 다시 주목받게 되고, 정책적 지원도 강화됨.
- 박근혜 정부는 ‘학벌이 아닌 능력중심사회 만들기’를 주요 국정과제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으며, 직업교육을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기반을 두어 개혁하기 위해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있음.

○ 제4장(경제발전과 직업훈련) 주요 내용

- 1960년대에 직업교육이 급속한 공업화에 필요한 기능인력을 충분히 공급할 수 없었기에 고용노동부가 직업훈련의 주무 부서로 인적자원개발 정책에 적극 참여하게 됨.
- 1967년 「직업훈련법」을 제정하고 공공직업훈련을 통해 기술계 기능인력 양성을 시작하였음.
- 1970년대 들어 정부 주도의 중화학공업 육성에 필요한 기능인력을 공공훈련만으로 공급하는 것에 한계를 인식하여 1975년부터 사업 내 훈련을 의무화하였음.
- 1980년대 들어 사업 내 훈련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인해 많은 사업주들이 훈련을 회피하고 분담금을 내는 것을 선호하는 상황이 되었으며, 대학진학률 증가 등으로 기능인력 양성 자원이 감소함.
- 1995년 고용보험제도가 도입되었으며, 직업능력개발사업이 실업보험사업, 고용안정사업과 함께 고용보험제도의 3대 축으로 자리매김함. 1997년 외환위기 상황에서 직업훈련은 실업자훈련을 통해 한국의 경제위기 극복에 큰 역할을 함.
- 1999년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의 시행으로 직업훈련에 있어서

공공 부문의 역할이 규제당국에서 지원당국으로 변화하게 되었음. 양성훈련이 축소되고 재직자 훈련이 급속도로 증가하게 되었으며, 2013년 현재 총 직업훈련 실적 400만 건 중 90% 정도가 재직자 훈련임.

- 학벌이 아닌 능력중심사회를 표방하는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후 국가직무능력의 개발, 이에 근거하여 국가자격체계 구축, 그리고 현장의 수요를 반영하는 한국형 일·학습병행제의 도입 및 확산에 주력하고 있음.

○ 제5장(경제발전 단계별 직업교육훈련의 역할) 주요 내용

- 초기 공업화 단계인 1960년대와 중화학공업 육성기인 1970년대에는 직업교육과 직업훈련 모두 경제발전의 기여가 컸으며, 인적자원개발에서 상당한 위치를 차지함. 학교 혹은 훈련기관을 통해 농촌 인력을 산업계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으로 양성함.
- 1967년 「직업훈련법」을 제정하여 공공훈련을 통해 정부가 주도적으로 인력을 양성하였으며, 중화학공업에 필요한 인력 양성을 위해 1970년대 중반에는 공업계 고등학교를 집중적으로 육성하였음.
- 1980년대 들어 직업교육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어 이에 대한 정부의 예산 지원도 축소되었음. 직업훈련의 경우 양성훈련의 대상이 감소하고 사업 내 훈련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규제로 인해 많은 사업주들이 훈련 대신 분담금을 납부하였음.
- 1990년대 전반기에는 전문대학에 대한 정부 지원이 강화되어 전문대학의 고등교육기관에서의 비중도 높아짐. 일반계 고교를 공업계 고교로 전환하고 공업계 고교를 신설하는 등 공업계 고

교 지원도 강화되었음.

- 1990년대에 들어 직업훈련의 실적이 개선됨. 경제활성화로 사업 내 훈련의 인력이 증가되었으며, 1995년 고용보험제도가 도입되어 직업훈련이 능력개발사업이라는 이름으로 고용보험제도의 축의 하나로 자리매김함. 1999년 「근로자훈련촉진법」이 시행됨.
- 중소기업컨소시엄사업, 노사공동훈련제도,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사업, 국가기간전략직종훈련, 직업능력개발계좌제(내일배움카드제) 등의 직업훈련 혁신사업이 2000년대에 도입되었음.
- 이명박 정부의 출범과 함께 ‘선취업-후진학’ 정책이 시행되면서 중등직업교육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었음.
- 박근혜 정부는 중등직업교육, 고등직업교육 모두 NCS에 기반한 교육을 강화하여 현장형 창의인재를 배출하고자 하고 있으며, 전문대학도 고등직업교육의 중심기관으로 집중 육성할 계획임.

## 2. 한국 중등직업교육의 현재와 미래(The Present and Future of Secondary Vocational Education in Korea, 연구자료 2014-36)

○ 목차 및 집필진

장	제목	집필진
제1장	한국 중등직업교육의 도전과제	박영범, 장명희, 윤혜준
제2장	중등직업교육의 변천사와 최신 동향	박영범, 장명희, 최동선, 윤혜준

<표 계속>

장	제목	집필진
제3장	중등직업교육의 개관	최동선
제4장	특성화고등학교 육성정책과 성과	허영준
제5장	마이스터고 도입과 성과	김종우
제6장	중등직업교육의 산학협력	최수정
제7장	고졸 취업자의 경력경로	최동선
제8장	중등직업교육의 비전과 어젠다	박영범, 장명희, 윤혜준, 최동선, 최수정

○ 제1장(한국 중등직업교육의 도전과제) 주요 내용

- 한국은 출산율의 빠른 감소로 인해 2040년에는 인구 10명 중 3명이 65세 이상 고령층으로 채워지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함. 이러한 현상에 대비하여 청년, 여성, 준고령자 등 현재의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국가 대응책 마련이 시급함.
- 한국은 고등교육 이수율이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며, 고학력화의 고도화가 심화될 전망이다. 한국의 청년층 고용률은 OECD 평균인 39.7%에 못 미치는 24.2%로 나타남.
- 지식기반사회에서 산업사회가 요구하는 다양한 직업능력을 중등단계에서 개발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숙련된 초급 기술자를 공급할 수 있도록 중등직업교육기관의 역할 재정립이 필요함. 현 정부는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기반을 둔 교육과정 개발과 국가자격체계의 수립을 추진하고 있음.

- 제2장(중등직업교육의 변천사와 최신 동향) 주요 내용
  - 1950년대 초반 UNKRA와 미 국무부 산하 ICA의 교육 원조로 중등직업교육 시설 투자에 대한 집중 분배가 이루어짐. 한국 중등학교 교육 개선을 위해 미국의 학교 제도 도입이 모색되었으며, 인문과정과 직업과정을 함께 운영하는 ‘종합고등학교’를 도입함. 1958년부터 시행된 ‘실업 기술교육 5개년 계획’은 한국 중등 직업교육 발전의 토대를 이루었음
  - 1960년대 노동집약적 산업의 육성으로 단기직업훈련을 통한 기능공을 양성. 1970년을 전후하여 숙련 기능공의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며 실업계 고등학교의 역할이 부각되어 정부의 집중투자가 이루어짐.
  - 1974년부터 중점 분야별로 공업계 고등학교를 육성하는 고등학교 특성화 사업 추진 및 「국가기술자격법」을 제정함.
  - 1980년대 기술 집약적 산업에 대비한 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되며 일반계 고등학교 위주의 교육 정책을 펼침.
  - 1990년대는 공업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실업계 고등학교를 대폭 확대하는 정책 시행 및 ‘2·1 체제’를 시범 실시하였고, 열린 학습사회 구현을 위한 수요자 중심의 평생직업교육체제 구축을 목표로 교육개혁을 발표함.
  - 2000년대는 ‘선취업-후진학’을 직업교육 정책 핵심으로 강조, 마이스터고를 새롭게 도입함으로써 고교직업교육 체제를 개편하고 산업사회에서 요구하는 인력 양성 기능을 강화함. 한국적 직업교육 모형을 찾기 위한 과정으로 고교단계 직업교육의 운영체제 다변화, 중등단계 직업교육 규모 축소, 직업기초능력 강



조, 현장실습 강조 등의 노력이 전개됨.

- 현 정부는 ‘능력중심사회의 구현’을 위해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따른 교육을 강화하여 현장형 전문인재를 양성하고자 함. 특성화고 육성 및 다양한 분야의 마이스터고를 지정 확대할 계획임.

○ 제3장(중등직업교육의 개관) 주요 내용

- 중등단계의 직업교육은 직업계열 교육과정을 주로 운영하는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를 통해 운영되고 있음. 2013년 기준 전체 고교생의 17.6%가 중등직업교육기관에 재학하고 있음. 한국의 중등 직업교육 체제는 노동시장 수요에 적절한 규모로 축소·정예화하는 정책 방향을 추진함.
- 한국의 중등직업교육기관은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 틀 안에서 지역의 노동시장 수요를 반영한 직업교육과정을 구성하여 운영함. 중등직업교육과정의 과제로는 직업교육기관 재학생의 낮은 기초학력, 학교교육과정에서의 직업기초능력 반영 방안 모색, 교육과정의 현장성 확보 등이 있음.
- 중등직업교육기관에는 직업교육 교사(전문교과 담당교사)와 함께 보통교과 담당교사도 함께 근무하고 있음. 직업교육 교사는 교직과정을 통해 양성하는 비율이 높은 편으로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산업현장 경력자 등을 임시 활용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중등직업교육 거버넌스 구조는 교육부의 기본계획을 토대로 시·도교육청이 세부 운영계획을 마련하고, 이를 단위 학교가

구현하는 체계임. 특정 산업분야를 담당하는 중앙정부가 중등 직업교육기관 운영지원 체제를 도입·운영하고 있으나, 산학연계 강화 및 산업계 참여 확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

- NCS를 기반으로 한 능력중심의 인적자원개발 체제를 도입하면서 자격제도의 개편 필요성이 대두됨. 일-교육-자격의 연계를 위한 ‘과정평가형 자격’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

○ 제4장(특성화고등학교 육성정책과 성과) 주요 내용

- 특성화고는 특정 산업과 연관된 전문 분야에 대한 직업 교양 교육과 전문교육을 실시하는 직업교육기관으로서 특성 있게 자율적으로 운영됨. 고교직업교육 단계에서의 직업세계로의 원활한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교육개혁 방안, 실업계 고교 육성 대책, 고교직업교육 선진화 방안 등의 정책들이 발표되었음.
- 특성화고의 법적 근거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 제1항에 있으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과정 주요 변경 사항으로는 특성화고 지정·고시의 주체를 시·도교육감으로 변경, 특성화고의 지정 및 재지정과 관련한 조항 추가, 특성화고의 지정·운영에 필요한 시·도 교육규칙 제정 신설 등이 있음.
- 정부부처 연계형 특성화고는 소관 중앙부처가 직접 특성화고를 육성·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 협약 특성화고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지원하며, 산업체 협약 특성화고는 해당 분야 산업체와 인력양성 및 취업에 관한 협약 체결을 통해 산학협력을 강화함.
- 취업중심 특성화고로의 체제 개편, 직업교육 내실화를 위한 교육

여건 개선, 고졸 취업문화의 정착으로 특성화고 졸업생에 대한 산업계의 긍정적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음.

○ 제5장(마이스터고 도입과 성과) 주요 내용

- 특성화고의 문제점 해소를 위해 산업계와 교육과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소질과 적성에 따라 해당 분야의 마이스터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마이스터고 제도를 도입함.
- 마이스터고는 기본계획 수립 후 총 9차에 걸쳐 42개교가 선정되었고, 국립 6개교, 사립 5개교, 공립 31개로 구성되며 총 모집 인원은 5,810명임. 주요 특징으로는 산업수요에 부합할 수 있는 학교만을 마이스터고로 선정하고 산업현장 전문가에 의해 교육과정 개발, 정규 교과 이외에 다양한 교과 외 활동이 산업수요에 맞게 정렬, 역량 있는 교원을 확보하고 활용한다는 점 등이 있음.
- 입학생 입학성적과 산학협력 추진실적의 지속적 증가 추세를 보이며,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이행 측면에서 졸업생과 기업체 인사담당자의 긍정적 평가가 이루어짐.
- 마이스터고등학교가 성공적인 학교 운영 모델이 되기 위해서는 지속 가능한 마이스터고등학교 운영 모델 구축, 능력중심사회 구현을 위한 시스템 구축, 고졸 취업 확산을 위한 맞춤형 선취업-후진학 체제 구축, 안정적인 재원 투입을 위한 재정 마련 등이 필요함.

○ 제6장(중등직업교육의 산학협력) 주요 내용

-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기업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며, 산업체 파견 형태의 현장실습 이수, 현장실습 교육 및 연구 활용 등을 촉진하는 학교기업 지원사업 추진, 교사의 산업체 현장연수를 지원함.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노동시장 이행의 전 과정에 산업체 참여, 방과 후를 활용한 기업 맞춤형 교육 운영, 지역 및 국가 수준의 지원체계 구축, 유관부처/기관이 협력하는 거버넌스 확보의 성과를 보임.
  - 학교 기반 직업교육과 기업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산학협력은 필수적인 요소임. 기업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구심체를 마련하고, 범부처적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산업별 인력 양성과 학교 직업교육과의 연계를 촉진할 필요가 있음.
- 제7장(고졸 취업자의 경력경로) 주요 내용
- 고교직업교육 이수자 가운데 취업자는 2009년까지 감소하다가 정책 강화로 증가하는 추세임. 직장 적응을 돕기 위해 자신의 직장에 몰입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보수 등의 고용환경 개선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함.
  - ‘후진학’은 고교 졸업 직후의 취업을 의미하는 ‘선취업’과 병행됨. 평생학습의 관점에서 고졸 후진학에 대한 논의가 전개될 필요가 있으며, 고졸 취업자들이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유연성과 다양성을 갖춘 후진학 계속교육 기회를 마련하여야 함.
  - 고교직업교육 이수자들의 지속적 경제활동 가능성을 높이고, 다양한 통계 인프라를 확충하여야 하며, ‘후진학’ 계속교육이 고졸 취업자의 지속적인 경력개발을 위한 필요조건이 되어야 함.

- 제8장(중등직업교육의 비전과 어젠다) 주요 내용
  - ‘꿈과 능력을 키워 주는 중등직업교육’ 비전 달성을 위해 현장성, 개방성, 유연성, 책무성을 4대 핵심가치로 설정함.
  - 현장지향적 중등 직업교육 강화, 중등직업교육의 학습경로 유연성 제고, 중등직업교육 운영의 참여주체 다양화, 다양한 직업경로 탐색을 위한 진로교육 혁신, 고졸 취업자의 지속성장을 위한 노동시장 여건 조성의 과제로 남아 있음.

#### 제4절 보급 및 활용

- 아·태지역 국가의 정부부처, 주요 유관기관 및 연구기관 등에 배포
  - UNESCO Regional Center로서 아·태지역 내 회원국들과 우수 TVET 정책 사례 공유
  - 직업교육훈련 분야의 공적개발원조사업(ODA) 사업추진에 기초자료로 제공
  - 개발도상국의 연구자, 공무원, 정책입안자 등에 정책자료로 제공
- 본원 방문 해외 사절단에 제공, 한국의 우수 직업교육훈련 정책 사례를 소개하는 문헌으로 활용
- 해외에서의 자료 접근성 향상을 위해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영문 홈페이지에 탑재

## 제4장

# 사업의 기대효과 및 활용 방안

제1절 기대효과 및 활용 방안

제2절 향후 추진 방향



## 제4장 | 사업의 기대효과 및 활용 방안

### 제1절 기대효과 및 활용 방안

#### 1. 기대효과

- UNESCO 회원국의 유관기관, UNEVOC 센터 및 네트워크 기관과의 국제 세미나 결과 공유를 통한 청년 숙련개발 및 고용에 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함으로써, 각국의 청년층 숙련개발 및 고용 정책에 관한 생산적 논의에 기여
- 아시아 지역 국가들과의 한국의 경제발전 경험과 인적자원개발 경험 공유를 통한 각국의 정책수립에 기여하며, UNESCO 아·태 지역 TVET 우수센터로서의 리더십 발휘 및 한국의 국가 위상 제고
- 한국의 직업교육훈련의 발전 과정과 중등직업교육의 주요 정책 이슈를 소개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여 해외 유관기관 및 관련 분야 전문가와의 영문 자료 공유를 통해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국제협력 기능을 강화하고 우호 관계를 증진하는 계기를 마련하며,  
TVET 분야 글로벌 허브 기관으로서의 기초자료 확보

## 2. 활용 방안

- 각국의 TVET 정책에 대한 비교연구 기초자료로 활용
- TVET 분야의 공적개발원조사업(ODA) 사업추진에 기초자료 제공
- 해외 유관기관 및 해외 사절단에게 한국의 TVET 우수사례를 소개할 수 있는 문헌으로 활용
  - 개발도상국의 정책입안자, 공무원, 교육훈련 관계자들에 정책 자료로 제공
  - UNESCO Regional Center로서 아·태지역 내 회원국들이 직업 교육훈련 발전에 대한 논의 시 기초자료로 제공
  - 자료의 효과적인 배포 및 연구성과 확산을 위해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영문 홈페이지에 탑재

## 제2절 향후 추진 방향

### 1. 유네스코 세계 교육포럼 2015 부대 행사의 일환으로 국제 세미나 개최

- 유네스코는 2015년 5월에 한국에서 세계 교육포럼 2015(World Education Forum 2015)를 개최할 계획임. 이에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세계 교육포럼 사전 행사의 일환으로 ‘Skills Development for All’ 이라는 주제로 국제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
- 유네스코가 주도한 기초교육 보급 운동인 ‘Education For All (EFA, 2000~2015)’의 목표 기한인 2015년 이후의 교육 목표 설정에 앞서 향후 직업교육의 발전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함.
- 또한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행사 기간 중 별도의 부스 운영을 통해 한국의 직업교육훈련제도를 소개하고 본원의 연구결과물을 공유하는 기회를 마련하여야 함.

### 2. UNEVOC 센터와의 공동연구

- 지역별 주요 UNEVOC 센터들을 중심으로 국제공동연구 추진 가능성 검토
- 향후 UNESCO-UNEVOC 포럼에 참석하여 BIBB, NCVER 등 UNEVOC 센터들과 연구 주제, 연구 추진 방법 및 방향을 논의할 예정임.

- 국제공동연구 수행을 통해 UNEVOC 센터들과의 협력관계를 증진하는 동시에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국제 연구역량을 강화시킬 것으로 기대함.

### 3. 영문 책자 발간

- 한국의 직업교육훈련제도의 분야별 개괄적 소개를 목적으로 발간했던 ‘VET in Korea’의 내용을 최근의 정책 동향 및 주요 현안 등을 중심으로 업데이트하고 보완하여 발간
  - 최근의 TVET 정책 경험 및 우수사례 공유를 통한 해외 유관기관과의 연구 네트워크 강화
  - 개발도상국의 한국의 우수 정책 벤치마킹 수요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대응 가능
  - 금년과 유사한 방법으로 원내 연구팀과의 협업 형태로 추진, 내용 보완 및 가독성 향상을 위해 원내외 전문가 감수 실시 예정
  - 유네스코 세계 교육포럼 2015 기간 중 본원이 별도로 운영할 부스에서 영문 책자 배포를 통한 한국의 우수 정책사례 적극 공유

# 부 록

## 1. 국제 세미나 영문 일정표



〈부록 1〉 국제 세미나 영문 일정표

**KRIVET International Seminar Enhancing the Link  
between Skills Development and Youth Employment  
Policies**

**June 12, 2014 Seoul, Korea  
Seminar Program**

Time	Program	Person-in-charge/Pre senter
<i>Venue: Seminar Room A, Somerset Palace Seoul</i>		
Thursday, June 12		
09:10~ 10:00	<b>Registration</b>	·Moderator: Janette Han
10:00~ 10:20	<b>Opening remarks</b>	·Prof. Dr. Park Young-bum
<b>Session 1: Linking work and learning(I)</b>		
10:20~ 11:40	<b>Presentations</b> · Joakim Bakke (Ministry of Education & Research Norway) · Gesa Muenchhausen(BIBB, Germany)	·Chairperson: Young-sup Choi (KRIVET)
11:40~ 12:00	<b>Q&amp;A</b>	
12:00~ 14:00	Lunch	
<b>Session 2: Linking work and learning(II)</b>		
13:30~ 15:30	<b>Presentations</b> · Erik Swars(SFIVET, Switzerland) · Philip Loveder(NCVER, Australia) · Yufeng Liu(CIVTE, China)	·Chairperson: Jae Woo Ryu (Kookmin University)
15:30~ 16:00	<b>Q&amp;A</b>	

Time	Program	Person-in-charge/Pre senter
16:00~ 16:15	Break	
	<b>Session 3: Panel Discussion</b>	
16:15~ 17:15	<b>Discussion</b> · Antje Barabasch(Cedefop) · Matthieu Cognac(Asia Pacific Office, ILO) · Shyamal Majumdar(UNESCO-UNEVOC)	
17:15~ 17:25	<b>Q&amp;A</b>	
17:25~ 17:30	<b>Closing</b>	
Friday, June 13		
10:00~ 12:00	<b>UNEVOC Network Meeting</b> · UNEVOC Network regional coordinators	

□ 저자 약력

- 임 언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선임연구위원
- 한정임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전문연구원
- 박동진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원
- 안유진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원
- 김소연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전문원

UNESCO Regional Center 사업 (2014)

- 발행연월일 2014년 12월 29일 인쇄  
2014년 12월 31일 발행
- 발행인 이 용 순
- 발행처 한국직업능력개발원  
339-00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  
홈페이지: <http://www.krivet.re.kr>  
전화: (044)415-5000, 5100  
팩 스: (044)415-5200
- 등록일자 1998년 6월 11일
- 등록번호 제16-1681호
- I S B N 978-89-6355-518-8 93340
- 인쇄처 범신사 (02)503-8737